

#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5.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5	1	12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5	-	-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4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철도 관련 민자사업 보도> 철도 민자 사업은 지역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더 심도있게 보도에서 다뤄주길 바람	철도 지하화 및 CTX 관련 보도는 향후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팔로우하며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임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노인 도박장 보도> 노인 도박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노인들의 놀이문화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인데 노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획 보도를 이어가겠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뉴스 편집 순서> 앞쪽에 사건사고를 배치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인공위성 보도를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총선보도에 집중하느라 과학 아이টে을 뒤에 배치했는데 총선이 끝났으니 우주 총회 등 과학계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뉴스 오프닝 인사> 뉴스 오프닝 인사 때 남성 앵커와 여성 앵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어색해 보임.	뉴스 진행을 스탠드 방식으로 전환 후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앵커 멘트 배분 등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전국 뉴스와 사건사고 보도 중복> 전국 뉴스에서 다뤄진 사건사고 뉴스를 지역뉴스에서 첫 코너로 보도해서 중복되는 느낌이 있음.	뉴스를 처음부터 계속 본 사람과 중간부터 본 사람들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편성 전략을 좀 더 보강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보도> 공단 이전과 관련해 반대하는 쪽 입장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균형 있게 다뤄주길 바람	공단 이전 이슈는 갈등의 이슈로서가 아니라 원도심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대안 및 해법 제시에 대한 뉴스를 준비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0시 축제 보도> 올해 축제기간을 9일로 늘린다고 하는데 주변 소상공인이나 교통약자 등의 의견도 다뤄주었으면 함	축제의 옳고 그름이 아닌 원도심 상권 마비와 교통 불편,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취재할 예정임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장애인 관련 보도> 장애인 보도 초점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두었으면 함	장애인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기술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음 <24. 5월 조치>	'24.4월
보도	<대전역 등 장소 관련 보도> 대전이 노점도시라고 하는데 만남과 모임의 도시답게 모이는 성격에 맞는 장소를 방송에서 다뤄주었으면 함	대전역 관련 숲츠를 만들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대전의 정체성에 관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소재를 개발하고 준비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교양	<문화예술 관련 캠페인> 대전을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림을 선물합시다' 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제작해주었으면 함	'그림을 선물 합시다'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부서장과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24. 5월 조치>	'24.4월
교양	<원도심 장기건축물 방송> 대전 원도심의 장기 건축물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다른 지역의 활용 및 해결 방법도 소개해 주었으면 함	도심에 방치된 장기 건축물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요한 문제라서 타 도시의 사례 등을 취재해서 방송을 이어가겠음 <24. 5월 조치>	'24.4월
기타 (시청자제시판)	<청취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부탁>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데 한파주의보 주의사항이 라디오에 나오는데 청취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부탁함	산불 관련 주의사항으로 소재를 변경하려 했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소재 변경이 늦어짐. 곧바로 변경 완료함 <24. 4월 조치>	'24.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5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월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 마정미,김정동,박미숙 위원 임기만료 -> 김미화,이성교,정성일 위원 새로 선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하상가 관련 보도> 단편적인 사실들만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메시지에 대한 논의 고민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중학생 학교 폭력 보도> 가해자가 옆 반으로 분리되어 2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옆 반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코레일 남성 육아휴직 보도> 남성비율이 85.8% 치우쳐 있는 기관에서 남성이 여성 육아휴직자를 앞질렀다는 보도는 통계의 착시임.	회의록 첨부	○		
보도	<노동절 관련 보도> 노동절 보도를 집회 사실만 보도했는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5.18 관련 보도> 우리 지역에서도 5.18관련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보도가 없어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 이슈 심층분석 채널 필요> 뉴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채널을 마련해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컷> 한 사람을 장시간 다루는 것 보다는 15분정도 짧게 나눠서 속도감 있게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	회의록 첨부	○		
교양	<태마기행 길 - 인터뷰 설정> 부여군수가 토마토 따는 장면을 설정했는데 그냥 홍보대사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설정도 괜찮을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 쇼츠 구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전문가의 의학지식에 대한 팩트를 접할 수 있도록 쇼츠를 지속적으로 구성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구성> 예전 방식처럼 대화나 토론의 방식이 아닌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았으면 함.	회의록 첨부	○		

## 2024년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회의 전 신임 위원 위촉식 개최)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6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4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2건인데요. 방송 다시 보기 요청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바쁜 중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위촉장도 수여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세 분의 위원님들을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프로그램에 대한 고견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 5월 시청자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 위원님들의 참신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방송된 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5월은 대전 지역의 이슈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화제가 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심당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앙로 지하상가 관련 이슈 등 지역에서 취재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진 의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 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심당도 그렇고 중앙로 지하상가도 그렇고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도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 의제를 깊이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입견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로 지하상가 이슈는 영상들이 대전MBC에서 많이 나갔는데 그 내용의 댓글을 보면 상인들이 집단이기주의인 것처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 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대전시가 여러 가지 법의 법적 절차에 맞춰 집행한다는 명목 하에 상세한 소통이나 혹은 상인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법 집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비판 의식이 있었습니까.

단편적인 보도의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들 위주로 나가다 보니 한쪽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나가지 않았나 하여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시사 영역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정확하게 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상인들은 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기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법 집행만 철저히 하게 된다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필요가 없겠죠. 법 집행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절충점들을 잘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 이장우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과 관련 메시지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지역에서 논의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고 고민하는 게 지역 방송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MBC가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중심된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나 창구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사 프로그램

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게 인력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 내부 사정들 때문에 어렵다면 유튜브라든지 여러 창구를 통해 더 가볍게 대안을 마련하고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심당 같은 경우도 코레일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심당의 입장 혹은 대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든 여러 내부 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역시도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채널들이나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내컷> 5월 23일에 방영됐었던 과학카페 쿠아와 관련된 사례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개성들을 잘 살린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근데 항상 <인생내컷>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역에 살고 있는, 혹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집중해서 잘 다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새롭게 찾는 것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속도감 있게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현재 약 50분 분량으로 한 사람을 다루는데, 짧게 나눠가지고 다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유튜브 채널이든 혹은 다시 보기 채널이든 최근에 여러 채널에서 사람들이 속도감 있는 영상을 즐기는 문화가 늘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끔 짧게 끊어서 하면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사람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문 방송인이 아니면 50분에 콘텐츠를 채우기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엑기스 위주로 짧게 촬영하는 것도 의외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 주셨고요.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우선 세 분의 신임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문화쪽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거 종료 후 여러가지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뉴스나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이나 전시회 등 단순한 행사 소개부터 공연을 본 사람들의 후일담에 대해서도 방송으로 다루게 되면 우리 지역이 과학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방송에서 자주 다뤄주고 지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향후에는 문화의 도시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께서 한 번 참신한 의견 주시죠.

김미화 위원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프로그램은 <테마기행 길> 5월 3일 방송분이었어요. 부여의 명소를 소개하고 충청 지역에서 유일하게 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일출도 감상하고, 비행을 잘 마치면 축하로 음료도 제공하고 수료증도 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여에서도 먹거리, 특히 굿뜨래 상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어원,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를 살리는지 등도 소개해 주셨고 또 백마강에 있는 수륙양용버스 등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카라반을 이용해서 캠핑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다양하게 소개된 점을 특색 있게 봤고요. 그런데 그때 카라반을 4월에 개장을 해서 이용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촬영 당시에는 진행자분이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저녁 시간대에 안에 계신 분이 구워주시는 고기를 먹으며 카라반 내부도 보여주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4인, 6인 카라반을 소개했기 때문에 가족, 연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당시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인터뷰를 통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즐겨서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도 소개해 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테마기행 길>을 보다보면 해당 지역에 있는 군수님들이 꼭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봤던 건 부여군 세도면에서 유명한 방울토마토를 소개해 주는 장면인데, 더 자연스러운 설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점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이 나오고 군수님이 일손을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토마토를 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며 군수님이 실제로 일손을 도와주러 오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 부여에 대해 더 많이 알리러 오시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설정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남 구례에서도 역시 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여기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군수님이 구례의 좋은 명소가 어디인지 추천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곳을 가보면 너무 좋다고 해서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알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소개하실 때 자연스러운 설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강 플러스>가 다른 방송사와 차별되는 지점은 지식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지점이라고 생

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5월 25일에 유방암에 대해 소개하는 게 나왔어요. 여성들 중에 유방암 환자가 많이 있는데 발생률이 어떤지, 원인은 뭔지,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줬었어요.

저도 마침 지인이 40대 초반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이 없어지니까 조형을 위해서 배에 있는 살을 올렸다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엔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몰랐지만 이런 지식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룬 부분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루하게 느껴져서 채널을 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나 쇼츠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봤는데 실제로 쇼츠도 운영되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도 되어 있어서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유튜브와 쇼츠로 활용한 점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도 유튜브나 쇼츠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팩트로 전달하는 부분이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제공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대전MBC가 공신력 있게 전달하는 점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에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섬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섬교 위원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5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학교 폭력에 관한 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가 폭력을 행사해서 같은 반에서 분리 조치 처분이 내려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옆 반으로 분리가 되어서 또 다른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이 교내 학교폭력이라 학교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산의 이 중학교 사건이 왜 대전MBC에 보도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고, 왜냐면 각 학교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산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보도하는 데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호 처분으로 굉장히 큰 처분이 내려줘야 옆 반으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 조치가 되는데 왜 옆

반으로 분리됐냐고 하면,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도했을 당시에 학교 측에 연락해서 왜 옆 반으로 분리되었는지, 그래서 2차 학교 폭력이 일어난 부분들을 왜 학교 측에서는 대응을 그렇게 했는지의 부분까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잘 알아들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보도는 마지막에 학교로 전화를 드려서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 지어서 보도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대전MBC 프로그램은 잘 보고 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역시 이섬교 위원님도 보도에서의 심층성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성일 위원  
대전MBC <테마기행 길>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테마기행 길>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인 충남 부여에 대해 전국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매력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중앙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뉴스데스크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보도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보도에서 표면적인 것들은 알 수 있었지만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심층적인 그런 보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노동 그리고 5.18 관련된 보도들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먼저 한국철도공사 남성육아휴직자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났다고 보도 자료를 보내고 이에 대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전MBC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육아휴직자 여성 앞질러...” 이런 제목으로 보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인원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였지만 이런 보도 같은 경우는 통계의 착시를 고려해서 조사 후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굉장히 큰 공공기관이죠. 가장 직원 수가 많은 공공기관이고, 남성 비율이 85.8%에 육박해 있습니다. 남성 비율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이것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철도공사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전체 남성 직원의 비율로 보면 1.35%로 여성 1.9%에 비해서 여전히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3년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에 대해서 알리오 공시를 보면 공공기관 평

균이 남성 같은 경우에 125.23% 늘었습니다. 근데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47.13%로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42만 1980명인데 한국철도공사가 3만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한국철도공사가 제대로 못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 없이 그냥 보도 자료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아쉬워서 앞으로 기관들의 통계 보도 자료를 그대로 내보내기 보다는 통계의 착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하면 국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 관련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MBC는 노동절 이전에도 4월 24일에 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전 사태 선포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노동계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뤘어요. 사실 다른 언론에선 많이 다뤄지지 않았었거든요. 대전MBC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다루면서 사실 지역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노동절 당일 보도를 찾아봤는데 대전MBC에서는 아마 관련 보도가 3건이 나왔을 거예요. 집회에 관련된 보도는 “대전 천안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 열려...” 이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에서는 집회의 규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등 단편적으로만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기사는 대전 충남 경찰청에서 그날 집회가 있으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다른 방송사인 TJB나 KBS 같은 경우도 똑같이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사실 노동자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뤄졌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대전MBC가 촬영도 많이 해서 심도 깊은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촬영 시간에 비해 보도시간이 40초 정도로 짧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후 내년 노동절 같은 경우엔 규모보다는 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이번 5.18을 맞이하여 대전MBC의 보도를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에 관련된 보도가 없었습니다. 44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지역 광주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5월 17일에 5.18 민주항쟁 대전시민정신계승대회가 있었는데 그에 관련된 보도가 없기도 했고, 사실 최근 충청 지역이 5.18에 대해서 새로이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에 개정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장소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개정을 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는 충청,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수도권 등 광주 밖 5.18을 조사해왔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작성돼서 올해 2월에 공개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서 타도시에 전국 최초로 나섰던 게 5월 1일 충남대학교의 계엄 해제 시위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대전 충남 지역에서 검거된 117인 가운데 그동안 구속자들에 대해서만 정보가 있었는데, 77명이 32사단에 강제 끌려와서 강제 순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명단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5.18이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에서도 그 당시 상당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근거 자료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보도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도일보 같은 경우는 5월 17일에 세 건의 보도를 했는데요, “대전 충남에서도 5.18은 있었어요.”,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5.18 민주항쟁 시기 충청서도 군부대 순화 교육 탄압 확인 77명 명단 나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새로이 밝혀진 사실이 있는 만큼 내년은 5.18 45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심층 조사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대전 충남 지역도 민족 운동이 굉장히 앞섰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잘 알려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노동 관련 이슈에서부터 역사적이고 시사적인 것 그리고 통계의 착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각도로 모니터링 한 의견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율과 수량, 그러니까 통계의 착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율로 비교하는 것하고 산술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것 그것을 뒤섞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대전MBC에서 그랬다가 보다는 성심당 관련한 보도에서 JTBC의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수료율 17%와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수수료율 17%라는 내용과 월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현재의 1억 임대료는 4%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율로 연결되는 내용이고, 다른 역사 매장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쁜 보도문인데, 대전 역사 안에 있는 다른 매장과 비교하면 이미 성심당은 30배 넘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17%와 4%라는 이제 보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금액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성심당은 30배 넘게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형평성 논란이 되려면 “성심당에 대해서 17%를 다른 매장은 다 적용하면서 유독 성심당은 4%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똑같은 비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형평성 논란이라고 보도한 JTBC 보도가 굉장히 이상했구요.

비율의 적용이면 비율의 적용이고 금액의 적용이면 금액의 적용으로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전MBC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성심당 관련된 이슈를 다룬 것에 더해서 이런 자료가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찰, 3차 입찰, 4차 입찰까지 가면서 성심당도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량평가서는 다 0으로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금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 수 있었어요.

JTBC 같은 사례의 경우 장관이 찾아왔느니 하며 이런 식으로 약간 센세이셔널한 보도였다면, 대전MBC에서는 성심당 입찰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볼 때는 17% 적용이라는 그것이 경직되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코레일에 의해서 성심당은 4차 입찰의 입찰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간 점은 긍정적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보도 프로그램을 뉴스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더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고정 편성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스트레이트 뉴스를 통해서 심화시키기 어렵고 계속 제기된 이슈들을 담아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생겨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구요.

성심당의 입장에서 저는 이상한 게 매출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비율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매출액을 낮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을 그냥 생짜로 낮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객들과 상생 차원에서 빵값을 낮추면 팔리는 양은 똑같지만 매출액은 줄어 들고 고객들도 이익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코레일의 임대료도 많이 안 올려줘도 되는 빵값을 대폭 낮추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왜... 즉, 이 보도들에서 성심당만 남아 있고 성심당의 고객들은 빠져 있다는 그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위원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작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로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김지훈입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성

심당 이슈나 중앙로 지하상가 이슈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중앙로 지하상가의 시청 점거 농성 같은 경우는 저희 취재기자들이 일찍 체크를 해서 현장에서 대기 하면서 저희의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절규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서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계신지의 부분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자. 그래서 밤새 기다리면서 강제로 끌려 나오시는 장면들을 대전MBC만 단독으로 확보를 해서 보도를 했던 거구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대전시장과의 면담이 진행됐기는 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를 왜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아젠다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거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 주체들을 한데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심층적으로 분석도 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7월부터 보도국에서 최근 1년 동안 중단됐던 토론 프로그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시각각>을 연출하다가 중단이 1년 정도 됐었는데, 7월부터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재개해서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대안을 모색하고 단순한 갈등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내는 토론을 지향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시청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 학교폭력 건 관련해서는요, 경찰 출입 기자들이 타사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기자실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팩트 체크에 나섰던 거고 피해자 학생 쪽의 제보나 이런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아서 아산교육지원청 쪽에 팩트 체크를 해서 단신으로 보도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됐고 이 분리 조치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더 심도 깊게 파고드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동절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단신 위주로 처리했다. 그리고 경찰 위주의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예전에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대전MBC가 처음으로 특종 보도했던 사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결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홀했다고 느껴지셨는지언정 저희의 중심은 항상 사회적 약자, 노동자 그런 분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 남성 육아휴직자 늘었다는 건 진짜 통계의 착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한스 로슬링 교수의 '팩트폴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충실성을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건데 거기에 딱 적합한, 저희가 통계의 오류를 미처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준 보도 자료대로 쓴 결정적인 사례죠.

가능하다면 보도국에 팩트폴니스라는 책을 놓고 기자들이 둘러보면서 우리가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거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서로 돌아가면서 보면서 스스로 기사를 쓸 때 오류에 빠져서 잘못 썼구나 라는 걸 깨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취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적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민주화 운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전의 대표적인 최초의 민주주의거죠, 38민주의거에 대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도 직접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참여자들 모시고 저희가 토론 프로그램 할 때 그 분들의 현재 심정, 그리고 38민주의거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기억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죽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의문사하신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가 제작을 해서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고요.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말씀 주신 부분들, 자료를 주시면 내년에는 더 착실하게 준비해서 지역의 잊힌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민주화의 기록들을 발굴해내서 찾아내는 과정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 임세혁 편성국장

편성국장입니다. 대전MBC가 주간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시간의 총량이 20시간이거든요. 로컬에서는 주로 아침 8시 반에서 9시 반, 저녁에는 6시부터 7시,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에 3시간, 일요일 오전에 3시간 이게 주축이고요. 뉴스는 아침에 7시 반 저녁에 8시 40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사실 동시간대 시청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간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인생내컷>은 유일하게 목요일 밤 9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만큼 저희가 힘을 들이고 있다는 프로그램이고요. MBC충북과 저희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여수MBC와 MBC강원영동에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MBC도 6월 20일부터 저희 <인생내컷>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과학카페 쿠아 송정현 대표 방송을 보시면서 저도 중간에 갑자기 자동차 만드는 쪽으로 갈 때 탄 얘기로 가나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애깃거리가 됐지만

사실 호흡이 긴 편이 있거든요. 그전에 충북에서 만들었던 정신과 의사 그분은 본인이 부모님께 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환자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5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낄 정도로 긴 호흡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50분이 모자랄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요. 속도감 있는 짧은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재가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인생내컷>은 저희가 힘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기행 길>은 오래됐고요. 저희가 지역 14개 MBC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대전MBC에게 제작 기회가 돌아오는 거는 1년에 4번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나갔던 부여군 편은 최주봉 진행자가 올해 한국 나이로 80이거든요. 근데 열기구를 체험하셨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열정 대단하시다고 느꼈었고, 열기구가 올라가서 전경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미화 의원님께서 군수님 출연할 때 방울토마토 작업 하시는 것처럼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이 건 더 자연스러운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제작진에게 잘 전달을 하겠고요. 카라반 이용객 인터뷰가 없어서 좀 썰렁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섭외를 해서 이용객들의 인터뷰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강플러스>는 하나의 질병이 있으면 전개는 똑같거든요. 그것이 저도 의학프롤을 오랫동안 진행해 봤지만 정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강의 순서로 가는데 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미디어에서 이 프로그램은 재가공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인생내컷>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건강플러스>는 오래 됐기 때문에 뉴미디어 팀에서 소주제별로 10분 단위라든지 이렇게 재가공을 잘 하고 있는데, 팩트 전달도 하면서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편성에 대한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체가 TV말고 라디오도 있으니까 나중에 라디오도 한번 모니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은표 경영국장

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 김영진 위원

김지훈 국장님이 <시시각각>을 7월부터 다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시각각> 관련된 피드백이 기존에 있었을 때, 작년에도 시청자 위원회에서 항상 <시시각각>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하셨던 방식대로 진행을 한다면 저는 다시 생각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저도 많이 출연했었지만, 매번 아쉬웠던 건 이게 토론 프로그램인데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토론이 되는게 아니라 항상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각자 준비한 얘기들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보도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나 지역 기사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랑 패널들의 답변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각자 준비해 온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안도 안 나오고,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답답해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역 방송사에서 토론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임세혁 국장님이 진행하셨던, 최근에 종료되었던 프로그램도 비슷한 패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들을 러프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고려된 새로운 <시시각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들로 소개하는 채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사례로 말씀드리면 성심당 매출이 최근에 이슈였잖아요. 1200억 원 나왔다. 근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파리바게트랑 성심당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성심당이 더 싸게 팔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셨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 원가액이라고 해서 보통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출 대비해서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냐,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영업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건데 파리바게트가 매출 원가액이 53%가 나오고 성심당이 56%에서 57%가 나와요. 성심당이 더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출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왜 사람들이 성심당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빵 얘기를 하는데 회계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거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등 이런 스피커들을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스피커 찾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스피커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찾는 게 결국 또 앞으로 이런 토론 프로그램의 쟁점이자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어렵지만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김영진 위원님은 저하고 2020년도에 유튜브로 총선 방송을 했었습니다. 6시간 동안 김영진 위원님이 패널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때도 참신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비록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렇게 소통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상파로는 안 되지만 이번에 토론을 재개하는 것도 그런 부담은 있죠. 예전처럼 진부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또 시청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패널들이 오셔서 진부한 말씀하시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 쪽에서 디지털 뉴스쪽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심당,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 저희가 스탠드 오픈 마이크를 지하상가에 하루 종일 설치해놓고 상인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걸 지상파로 뉴스화가 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디지털 뉴스 쪽에서, 유튜브 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을 토론 앞부분에 영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따가운 질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일 위원

원래 내용이 많아서 안 할까했는데 대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성심당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과학기술계인 것 같은데 지금 R&D 예산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5월 달에 보면 R&D 예산 관련된 그런 보도가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기자회견 했던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게 다뤄졌던 것 같은데 사실 대전에서는 R&D 예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카이스트에도 있고 그리고 출연연 연구기관에도 굉장히 많이들 계실 건데 MBC 중앙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그런 과학기술계의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떠나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취재하고 보도 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에도 시민들이 R&D 예산에 의해서 자기 본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최근에 만났었던 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님이 세 아이의 엄마신데 R&D 예산 삭감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었

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탄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낮에 방송될 예정인데 앞으로 저희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R&D 예산 삭감 그리고 우주청의 R&D 본부 대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기획 보도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준비 중이신 게 많으시니까 뭘 얘기해도 답변이 바로바로 딱딱 나오시네요. 다음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 아무래도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정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좋은 말씀 참신한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6월, 7월 계속해서 좋은 시청자위원회의 토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위원님들이 총 10분이신데 오늘 다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저녁까지 토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분의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시청자위원회의 전통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뜨겁고 열띤 토론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저희에 대한 칭찬보다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하나의 지적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의미 있는 지적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세 분의 원님들 오늘 처음이신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시청자 의견을 마치겠습니다.